



스위스 그랜드 투어 플레이 리스트.

11 개 구간의 풍경과 정서에 꼭 맞는 음악 따라

총 16 개 지역 스위스 라디오 청취자들이 추천한 곡으로 구성된 플레이 리스트

달리는 구간에 맞는 플레이 리스트 재생하고 큰 소리로 따라 불러

그 풍경 속에 온전히 들어가 있는 자신 발견할 수 있어

여정 그 자체가 목적인 아름다운 드라이브 여행

여행 이후 그 노래 들으면 자연스레 떠오를 스위스 풍경

자동차로 여행을 한다는 것은 고속도로를 이용해 목적지까지 최대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한다는 ‘이동’ 자체의 목적도 있지만, 조금만 더 여유를 갖는다면 국도를 이용해 풍경 속에서 달리며 ‘여정’ 자체를 즐길 수 있다.

스위스정부관광청은 2015 년부터 ‘스위스 그랜드 투어(Grand Tour of Switzerland)’라는 테마로,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며 알프스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 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오고 있다. 차량을 이용해 스위스 전역을 달리며 5 개의 알프스 고갯길, 22 개의 호수, 12 개의 유네스코 세계 유산을 비롯해 다채로운 풍경을 만나볼 수 있게 된다.

스위스정부관광청은 최근, 스위스 그랜드 투어를 보다 감성적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, ‘플레이 리스트’를 선보였다. 각 구간의 풍경과 정서에 맞는 음악을 선곡해 구간별 플레이 리스트를 만든 것이다. 세계적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, 스파티파이(Spotify)에서 플레이 리스트를 재생할 수 있는데, 달리는 구간에 맞는 플레이 리스트를 재생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다 보면 그 풍경 속에 온전히 들어가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다.

스위스정부관광청과 스위스 그랜드 투어 협회, 총 16 개 스위스 지역 라디오 스테이션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프로젝트로, 라디오 청취자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달릴 때 즐겨 듣는 노래를 추천하여 완성되었다. 총 11 개의 플레이 리스트로 구성되어 있는데, 각 구간별로 개성 넘치는 선곡이 빛을 발한다. 각 플레이 리스트는 40 곡에서 100 곡 사이로 구성되어 있다.

총 1,600km 의 다채로운 풍경을 달리게 되는 스위스 그랜드 투어에서도 백미로 꼽히는 푸어카패스(Furkapass: 2,429m) 고개는 전 국간 가장 높은 지점이며, 마조레(Maggiore: 193m) 호수는 가장 낮은 지점에 위치해 있다. 스위스 그랜드 투어 코스는 산속 코스들이 여름 시즌, 즉 5 월부터 10 월 중순까지만 개방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, 서두르는 것이 좋다.

11 개의 플레이 리스트는 다음에서 스트리밍 받을 수 있다. 단, 스트리밍 서비스는 대한민국에서는 지원되지 않으므로, 스위스 여행시에 접속하여 서비스 받을 수 있다.

<https://open.spotify.com/user/wt1fwbdwmqjcgghg74wr4c4t8t?si=trDeljBxSSaWCMVdE8I9Dg>

자료 제공: 스위스 관광청 www.MySwitzerland.co.kr